

메카테리얼 (Mechaterial)

팀원 : 200721813 한덕현
200921625 나영탁
200921652 우현진
200921539 이원채

주제명 : 일본의 건축물 양식

일본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양식이 한국과 다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.



캐널 시티, 텐진 지하상가, 나카스 거리, 호크스 타운, 모모치 단독 주택 단지, 오토리 공원 :

일본의 도시 풍경을 알 수 있었다. 전박적인 풍경은 우리나라의 서울 도심과 매우 흡사하였다.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특징은 건물의 평균적인 높이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.

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거리의 풍경이 매우 쾌적하였다는 것이다. 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. 그리고 일본인의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



있었으며,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비쌌다. 캐널 시티의 경우 건물의 형태가 매우 변화무쌍하였으며 그 내부의 흐르는 강물은 자연과 조화된 현대적 건축물의 모습이 얼마나 수려한지를 알 수 있었다. 텐진 지하상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하상가와 달리 매우 아늑한 모습으로 매우 정렬된 상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모모치 단독 주택 단지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와 차이는 집집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무를 많이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다. 주택의 구조는 대부분 2층 구조이며 집 안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. 대부분의 주택이 비슷한 패턴으로 건축되었으며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주택 간의 큰 차이점은 찾기 힘들었다.

- 구지다 신사, 향토관



일본의 전통 가옥과 신(新)을 모시기 위한 신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일본의 향토관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초가집과는 달리 지붕의 구조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재로 구성된 보가 연속적으로 교차된 그물망 형태가 중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외에도 천을 짜기 위한 베틀, 다다미방 등을 볼 수 있었다. 일본의 경우 신사를 도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. 그 중 구

지다 신사는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신사였다. 그 내부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절과 흡사하였다. 우리나라의 절과는 달리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웠다.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는 장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.

- 카와바타

일본식 아케이드 상가이다. 수원시 지동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. 비교적 매우 조용한 분위기이었으며 좌판을 통한 물품 전시는 비교적 적었다. 지동시장과는 달리 매우 정적인 분위기에서 식당의 규모는 매우 작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.



- 야후 돔 구장, 후쿠오카 타워, 뱃부 타워



일본의 현대적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었다. 후쿠오카 타워의 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X자 형태의 빔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 후쿠오카 전망대를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. 약 70초 동안 전망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쿠오카 타워의 철근 구조물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. 전망대에서의 전망은 후쿠오카 시내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 뱃부 타워



는 비교적 낮은 높이의 타워이었으며 후쿠오카 타워와 마찬가지로 전파 송신탑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.